

社 說

유권자가 지역발전 礎石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20여일 남았다. 우리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유권자들이 부적절한 인물을 선택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정선거법이 크게 강화되어 사소한 불법선거운동까지도 적발하고 처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탈법 선거를 했다가는 의외적이 사실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선거때만 되면 불법 선거운동 시비가 발생한다. 이번 재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철우 의원이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후 불과 한달만에 실시되기 때문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의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여 함몰을 제공받려고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은 모두 4명이다. 열린우리당은 선거일정의 촉박성을 감안해 그동안 시행해 온 지역경선 방식 대신 공천심사위원회를 갖고 장병재, 오병익, 이흥구, 서장원씨 등 4명의 공천심사자중 장병재씨를 열린우리당 후보로 확정했다. 한나라당 또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고조흥, 유왕현, 차상구씨 등 3명중에서 고조흥씨를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했다. 새천년민주당은 이운구씨를 공천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천과정은 이전에 시행하던 상향식 공천보다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으로 공천했다.

이번 재선거 유권자는 포천시 11만천여명과 연천군 3만7천여명 등 총 14만8천여명이다. 각 후보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지역 재선거 분위기는 냉담하기 그지없다. 또 후보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지 말든지 관심없는 유권자들이 대다수다. 단지 후보자들 마음만 바랄 뿐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후보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한다.

유권자들이 보는 정치는 깨끗하지 못하고 정치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불법선거 운동과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이 이제는 무관심 또는 냉소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선거전이 후보자간 정책대결보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전개된다면 후보자간의 상호비방이나 흑색선전은 난무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더더욱 냉담해질 것이다.

선거는 우리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다. 지역대표는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선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선출되는 대표에 게만 기대할 수 없다.

실망하고 외면하는 것보다 선거에 적극 동참해 유권자가 정치풍토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포천시·연천군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유권자들의 의식변화가 바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마예정자들의 출마의 변

열린우리당 장명재 후보

“포천·연천 개혁기관차의 새 엔진이 되겠습니다”



장명재 열린우리당 후보

은 이미 시작되었고, 개인적으로 이곳이 변화와 개혁의 총창지가 아닌 발원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석하게도 뜨거운 기

접경지역 = 포천·연천= 보수라는 등식은 깨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총선에서도 예상치를 뛰어넘어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

으로 앞장서던 장수를 잃고 말았습니다. 한번 시작된 변화와 개혁의 기관차가 멈춰서는 안됩니다. 부추하지만, 재가 포천·연천 개혁기관차의 새 엔진이 되겠습니다. 개혁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조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와 같이 우리가 계속 숨없이 추구할 가치입니다. 경기북부, 포천·연천을 더 이상 낙후된 수도권 오지로 방치해선 안됩니다. 개혁은 말로서만 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개혁의 완성은 실제로 개혁의 단열매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손에 쥐어 주는데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정신을 근간으로 구체적 개혁의 성과물을 내보내겠습니다. 대통령직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글로벌기업 삼성그룹에서 익힌 경영감각으로, 국회에서 갈고 닦은 정책능력으로 낙후된 포천·연천의 지역발전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

“경험과 경륜을 갖춘 참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조흥 한나라당 후보

여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과 경륜없이 재능만을 자랑하는 단순한 젊은 새사람(new man)이 아니라 나이와 관계없이 경험과 경륜을 갖추면서도 생

각과 행동이 참신한 사람(fresh man)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마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민의 뜻을 자의로 방자하면서 원칙없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라를 책임진 정치인들의 많은 수가 부정부패에 감여되어 있는 사실을 직시한 결과 원칙에 따르고 정직하고 정도로 사는 참신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권과 금권 등 비합리적 요인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깨끗한 정치', 평소에는 국민을 소외시켰다가 필요할 때만 구걸하는 정치에서 '참여의 정치'로 아무런 기준없이 인기몰이식 무책임한 선동정치에서 약속을 책임지는 '책임정치', 밀실에서 패거리들이 움직이던 닫힌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열린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이운구 후보

“포천·연천에는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운구 새천년민주당 후보

중앙위원, 새천년민주당 경기도지부 조직실장 역임 등 한반도 정당을 옮긴 일 없이, 어려운 길이지만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투배기 같은 사람입니다.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정치력을 심본 발휘하였으며, 경기도 건설계획심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수해특별대책위원, 건축대상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탄탄한 실력을 쌓으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의원이었습니다. 서예학원도 20여년을 한결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 자치센터 서예/한문 강사를 하였고, 장애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휠체어 마라톤대회, 지체장애 어린이 갯벌탐사, 장애우 노래자랑 등 장애우와 함께 하는 진정한 따뜻한 마음의 지방 정치인이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규제완화 및 악법 철폐를 위한 토론회 때날로 참석하여 포천·연천 지역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무소속 유왕현 후보

“준비해 온 민생정치 이제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유왕현 무소속 후보

발전은 위한 각종 민속행사의 부활, 체육발전을 위한 지역축구활성화 활동,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민생정치를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실천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역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저는 지난 10년간을 지역민들과 회노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조정 역할,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민속행사의 부활, 체육발전을 위한 지역축구활성화 활동,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 우뚝 설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2005세계바둑선수권대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한 도전장을 띄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활동은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함께 호흡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민의 대표일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밑천이 되었습니다. 그 큰 꿈을 위해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이 지역민들이 어렵게 해야 민족을 느끼고 서로 돕는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지, 온 몸으로 느껴왔던 그 방향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정빛빛 구호가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이루어내고,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국회의원再選舉 선거비용공고

제한액은 1억8천8백만원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천8백만원이다. 지난날 31일 확정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1억8천8백만원으로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후보자 홍보물 작성비, 거리유지책비 기자 94spice@hanmail.net

경기교육감 선거 7인 출사표

구충희 김용 김진춘 이학재 조현무 최희선 한만용



기호1번 구충희 후보, 기호2번 김용 후보, 기호3번 김진춘 후보, 기호4번 이학재 후보, 기호5번 조현무 후보, 기호6번 최희선 후보, 기호7번 한만용 후보

오는 18일 실시되는 제5대 경기도교육감 선거 7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기호1번 구충희 후보는 43년 충남 보령출생으로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안산교육청과 도교육청 장학사, 도교육청 장학관, 중등교육과장, 분당중앙고 교장,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도교육위원으로 수임중이다. 기호2번 김용 후보는 42년 전남 영암출생으로 공주사범과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남양주교육청 장학사, 평내초등학교 교장, 가평교육청 학부과장, 양평교육청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3번 김진춘 후보는 39년 경기 화성출생으로 인천사범(현 경인교대)을 졸업하고 수원매탄 곡성초등학교 교장, 안성 수원교육청 학부과장, 도교육청 장학관 교직과장, 평택교육청, 수원시 교원단체연합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도교육위원이다. 기호4번 이학재 후보는 42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공주사범을 졸업하고 도교육연구원 연구사, 청운고 교장, 도교육청 장학관 중등교육과장, 수원교육장, 권선고 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용인대 교육대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5번 조현무 후보는 4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포천 인양교육청 장학사, 관악정보산업고 교장, 안양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도교육청 과학교육과장, 수원 교육장을 역임했다. 기호6번 최희선 후보는 4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대를 졸업하고 서울 수도공고 교사, 인천교대 교수와 총장, 뉴욕주립대 교육행정 정책학과 객원교수, 교육부장관회의 회 부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인교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7번 한만용 후보는 52년 충남 태안 출생으로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김포 고창초등학교 교사, 안양 호계 만안초등학교 교사, 시흥 서해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시흥 대야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각 후보별 주요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구충희 후보는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칭 '교육균형개발법' 제정추진 변화와 혁신의 경영마인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 인사업무정책 시행으로 혈연과 지역,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인사실현 대도시와 농어촌,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간 교육여건 및 환경격차 해소 품과 희망이 있는 경기교육 구현 김용 후보는 경기도만의 정체성 교육,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육과 선진국 도약을 위한 경제교육 뒷받침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새로운 교육수요에 적합한 교육체제를 구축하

고 사교육비 부담경감 교원존중 풍토 조성 과 현장 우수교원의 발굴, 추천 포상 적체적소 등용을 활성화 자율책임, 참여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 및 시책 개발지원 강화 김진춘 후보는 온라인 학력관리 체제를 구축해 확실한 기본학력 보장 영재교육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생활지도 상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 폭력을 일소하고 즐거운 학교조성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 경영권을 확대해 신바람나는 학교경영풍토 조성 일등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평생학습시설을 확충해 감동하는 경기교육 실현 이학재 후보는 학교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뢰확립 교원의 사기 진작과 생활감 넘치는 교육활동을 중시하는 교육풍토 조성 학생들을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가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지도 목표지향적 교육에 치우친 우리의 초 중등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가치지향적 교육을 조화롭게 견지해나가는 교육풍토 조성 조현무 후보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경기도 규모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학력향상 학교경영의 자율성 지원과 교직원의 자긍심 고취 교육복지 실현과 인사제도의 혁신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 지원과 실용교육 활성화 경기교육발전위원회 구성 최희선 후보는 국제수준의 학력신장 우선 정책과 사립법을 중시하는 학생문화조성 신뢰받는 교육감, 도와주는 교육청을 비전으로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 사립 설립 특수 유아 교육의 균형발전 추진 한만용 후보는 공교육 위상 제고 이공계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올바른 역사관 인식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기초 학력신장 학원 폭력 근절을 위해 인성 전통교육 강화 등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기동반, 지역반, 사이버전담반 등 구성으로 감시활동



지난달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선거부정감시단 72명 위촉식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연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실시하는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재선거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선거부정감시단 72명(포천시 55명, 연천군 17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는 발대식을 지난 1일 오전 10시에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했다. 이날부터 감시단원들이 포천시·연천군 전역에서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감시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감시활동은 기동반, 지역반, 사이버전담반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재선거임을 감안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민 모두가 불법 선거운동의 감시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588-3939로 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7구역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傳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호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인 구봉주
광고접수 (031)542-9888	편집국장 김영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쇄인 김규석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